



2019년 8월 18일(제942호) 연중 제20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성령의 불로 변화되는 세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불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추울 때는 따스함으로 얼었던 몸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칫 불은 인간에게 커다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다주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상태로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르러 오신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며,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에 생명까지 바쳐서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며 인류는 하느님의 아들로부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날로 증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외투를 벗어 헐벗은 형제에게 입혀주며, 길

잃은 형제들을 맞아 후하게 대접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그 얼룩진 얼굴을 씻어 주는 불꽃이 이 세상에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병들 역시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낡은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랑의 불을 지르는 방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것을 태워 버리고 변화시키며, 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불은 사랑의 불이고, 평화의 불이고, 기쁨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사는 세상 곳곳에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불타오르는 정화된 밝은 주님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표인(요셉) 신부  
철성(7시반) 생당 주임

**제 1 특 시** 예레 38,4-6.8-10

**회 답 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2 특 시** 히브 12,1-4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루카 12,49-53

**영 성 제 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윤유일 바오로



성인명: 윤유일 바오로 (尹有一 Paul)

신분: 밀사, 순교자

활동연도: 1760-1795년

‘인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윤유일(尹有一) 바오로는 1760년 경기도 여주의 점들(현,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에서 태어나 이웃에 있는 양근한감개(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로 이주해 살았다. 1801년에 순교한 윤유오 야고보는 그의 동생이고, 윤점혜 아가타와 윤운혜 루치아는 그의 사촌 동생들이다.

양근으로 이주한 뒤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던 윤 바오로는, 서적을 통해 천주교 신앙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스승의 동생인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이후 가족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열중하였다. 교회의 지도층 신자들은 1789년에 북경의 구베아(A. Gouvea, 湯士選)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때 밀사로 선발된 이가 바로 윤 바오로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성격이 온순한 데다가 심지가 굳고 학식이 높았으며 교리에도 밝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바오로는 북경을 오가는 상인으로 가장하고 주교에게 보내는 신자들의 서한을 옷 안에 숨긴 뒤, 1789년 10월 조선을 떠나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초에는 북당에 있는 라자로회 선교사들과 남당에 있는 구베아 주교를 만날 수 있었다. 또 윤 바오로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라자로회의 로오(N. J. Raux, 羅) 신부에게 조건부 세례를 받고, 구베아 주교에게 견진성사를 받았다. 아울러 구베아 주교에게서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대해 들었다.

윤 바오로가 1790년 봄에 귀국하자, 지도층 신자들은 성직자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일 때문에 윤 바오로는 그해에 다시 한번 북경을 다녀와야만 하였다. 1794년 말에 마침내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뒤, 윤 바오로는 북경 교회와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곧 주 신부의 입국 경위가 밝혀지고, 그의 입국을 도운 밀사인 윤 바오로와 지황 사바와 최인길 마티아가 체포되고 말았다.

윤 바오로와 지 사바와 최 마티아는 체포된 날부터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이때 그들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인내와 결심,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은 박해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그들은 주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수없이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에까지 번졌다. 이제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때려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윤 바오로와 지 사바와 최 마티아는 그날로 사정없이 매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이었다. 당시 윤 바오로의 나이는 35세였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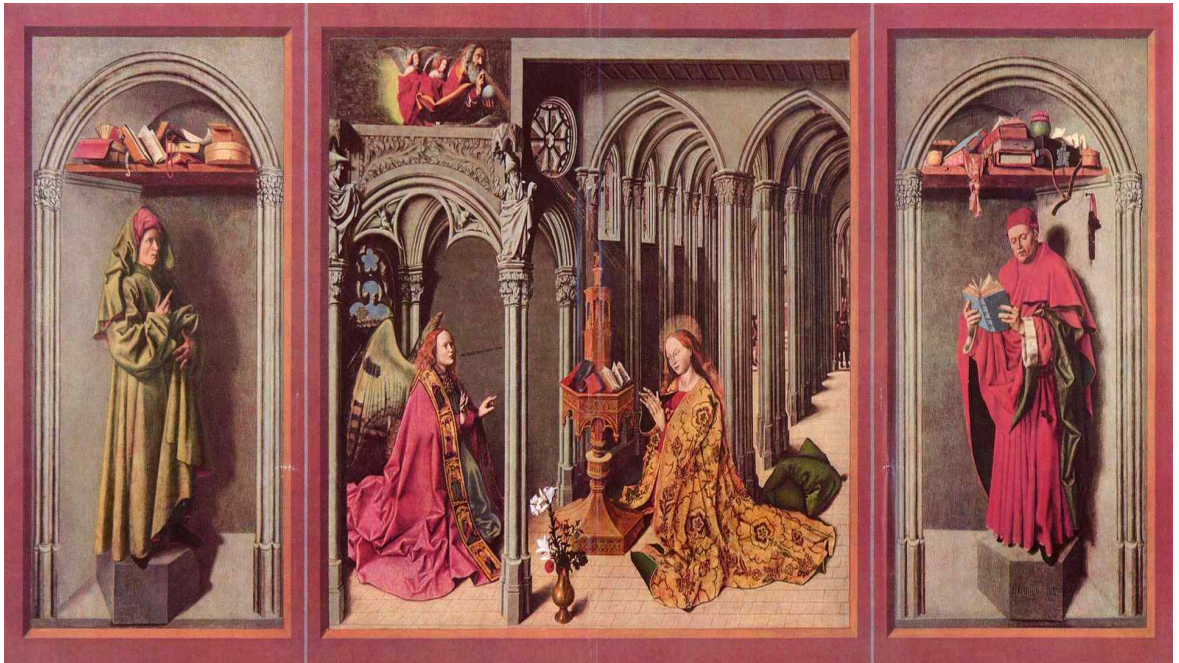


하늘과 땅에  
참 많이도  
약속하고,  
맹세하며  
살아왔다.

이 모두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살겠노라고  
약속하며,  
또 하나의  
지장을 찍습니다.

상화이야기

수태고지화



직지 미상, 1443-1445년경 제작  
패널 위 유희, 348x86cm  
브뤼셀 왕립 미술관, 벨기에

진제 제단화

남부 프랑스의 엑상프로방스 주교성당에 걸려있던 수태고지화로, 지금은 패널마다 분리되어 각기 다른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며, 화가의 이름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중앙에는 고딕 성당 내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모님을 가브리엘이 방문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알리고 있고, 왼쪽에는 이사야 예언자가, 오른쪽에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패널도 중앙 부분의 고딕 성당 한쪽 벽면의 작은 공간처럼 느껴진다. 추기경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을 탐독하는 듯이 보이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마치 동시대의 성직자 같다. 상단의 선반에는 각종 두꺼운 책들과 양피지 두루마리들과 서신이 보여,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예언자를 표현하고 있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0주일: 명성대 진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8월 18일(주일) 11:00

◆ JSA 성당 축성식

때: 8월 21일(수) 11:00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